

제 목	국 문	일부 노인의 삶의 질 지표에 영향을 주는 변수-강화코호트 연구		
	영 문	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Kangwha old people -Kangwha cohort study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오희철 ¹ , 김춘배 ¹ , 지선하 ² , 김석일 ¹ , 김희옥 ³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,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² , 연세대학교 강화보건원 ³		
	영 문	Heechoul Ohrr ¹ , Chun Bae Kim ¹ , Sun Ha Ji ² , Suk Il Kim ¹ , Hee Ok Kim 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Yonsei University ¹ ,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, Yonsei University ² , Kangwha Community Health Teaching Center ³		
분 야	역 학	발 표 자	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 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✓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5 년 10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강화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지역사회주민 6,382명을 대상으로 1985년 3월에 구축해 놓은 강화코호트를 10년 후인 1995년 현재 삶의 질을 측정, 사망력과 삶의 지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보고자 한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삶의 질은 Neugatren 등(1961)이 개발한 'Life Satisfaction Index A'와 Anderws와 Withey(1976)의 'Face Scale'로 측정하였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성별로는 지난 10년간 남자 2848명 중 38.9%인 1109명이 사망하였고 여자는 3,534명 중 25.1%인 888명이 사망하였다. 흡연변수에서는 1985년 현재 흡연자 2,851명 중 38.7%, 금연자 280명 중 39.3%인 110명, 그리고 비흡연자 3,251명 중 24.1%인 782명이 사망하였다. 음주력에서도 1985년 현재 음주하는 사람 2,149명 중 774명 즉 36.0%가 사망하였고, 비 음주자 4,233명 중 28.9%인 1,223명이 사망하였다. 역시 1985년 고혈압이 있었던 3,675명 중 36.3%인 1,333명이 사망하였고, 정상인 사람 2,707명 중 24.5%인 664명이 사망하였다. Neugatren의 삶의 질 지표 평균점수는 1985년 현재 흡연자 14.2, 금연자 15.2, 비흡연자 15.3으로 비흡연자가 가장 높은 삶의 질 지표를 갖고 있었다. 한편 음주에 있어서는 1985년 현재 음주자는 삶의 질 지표가 15.3인데 비하여 비음주자는 14.6으로 낮았다. 그의 Anderws와 Withey의 Face Scale과 생활양식 변수 등을 다변량 분석으로 제시한다.

4. 고찰